

# ‘코로나 엔데믹 효과’ 서비스업 3년만에 ‘봄날’

### 지난해 매출 3000조 돌파...예술·스포츠·숙박·음식점업 등 ‘견인’

### 5곳 중 1곳 플랫폼 거래...도소매·숙박업 매출 늘고 부동산 줄어

지난해 코로나19 엔데믹 효과로 서비스업의 매출액이 3000조원을 넘어섰고 매출액과 종사자, 사업체 수 모두 3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 소비가 늘면서 디지털 플랫폼과 거래하는 사업체 비중이 20%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종사자·사업체 수 3년 만에 모두 증가=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2년 서비스업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은 3053조원으로 전년보다 234조원(8.3%) 늘었다. 예술·스포츠·여가업(33.7%), 숙박·음식점업(20.2%) 등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다.

사업체당 매출액과 종사자 1인당 매출액도 전년보다 각각 8.1%, 6.7% 늘어난 7억5000만원, 2억1800만원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매출이 1728조원(56.6%)을 기록해 전체의 절반을 웃돌았다. 전문·과학·기술업은 217조원(7.1%)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부동산업은 211조원(6.9%)으로 뒤를 이었다.

서비스 사업체 수는 407만3000개로 정보통신업(6.3%) 등에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7000개(0.2%) 늘었다.

도소매업이 151만9000개(37.3%)로 가장 많았고 숙박·음식점업(85만9000개·21.1%), 수리·개

인서비스업(37만1000개·9.1%) 등 순이었다.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1403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20만7000명(1.5%) 늘었다. 예술·스포츠·여가업(5.3%), 정보통신업(5.1%) 등에서 증가 폭이 컸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357만5000명(25.5%)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사회복지업(245만6000명·17.5%), 숙박·음식점업(221만5000명·15.8%)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서비스업의 매출·종사자 수·사업체 수가 모두 증가한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에다.

◇포장 음식 늘어 폐기물업 매출 증가...보건·여가업도 호조=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 매출(196조원)이 전년보다 20.2% 늘어 증가세를 견인했다.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호텔업 등 숙박업 매출이 37.6%나 경증 면 영향이 컸다.

숙박·음식점업 종사자 수는 전년보다 5.1% 늘었지만 사업체 수는 0.5% 감소했다

도소매업 매출은 패션·화장품 등 소비가 늘고 온라인 쇼핑 성장세도 이어지면서 전년보다 7.5% 늘었다. 다만 종사자 수와 사업체 수는 각각 2.5%, 1.1% 줄었다.

수도·하수·폐기업 매출(38조원)은 포장 배달 음식 이용 증가로 재생·재활용 수요가 늘면서 7.7% 늘었다.

보건·사회복지업은 고령 인구 증가세에 따라 매출(199조원), 종사자 수(245만6000명), 사업체 수(16만7000개) 모두 각각 8.5%, 4.2%, 2.9% 늘었다. 예술·스포츠·여가업도 매출(57조원), 종사자 수(44만4000명), 사업체 수(14만5000개)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부동산업은 지난해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영향으로 매출(211조원)과 종사자 수(69만1000명)가 각각 7.3%, 1.7% 줄었다. 사업체 수(29만개)는 1.4% 증가했다.

◇10곳 중 4곳 이상은 ‘배달 판매’=디지털 플랫폼과 거래하는 사업체 비중은 19.2%로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소매업이 22만7000개로 가장 많았고 음식·주점업은 16만8000개였다.

무인 결제기기를 도입한 사업체는 전체의 5.6%로 전년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음식·주점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사용 비중(7.9%)이 가장 높았고 전년과 비교해 상승 폭(2.4%포인트)도 컸다.

배달 판매를 하는 사업체 비중은 42.0%로 전년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 47.1%, 음식·주점업 35.6%가 배달 판매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증시 부진에...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비중 첫 상승

### 통계청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지난해 증시가 부진하면서 퇴직연금을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늘었다. 주택구입 목적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3년 만에 줄었다. 퇴직연금 가입률도 1년 전보다 낮아졌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335조원으로 1년 전보다 13.7% 늘었다.

운용방식별로 보면 원리금보장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85.4%로 2.3%포인트 높아졌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높아졌다.

원리금보장형은 예·적금, 국채 등 원리금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투자되는 적립금을 말한다. 지난해 증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보다 원리금보장형의 운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집합투자증권, 직접투자 등 원리금이 보장되지

주택구입 목적 인출 3년만에 ↓  
연금 가입률 53.2%로 첫 감소  
적립금 335조원 13.7% 증가

않은 방식의 실적배당형 비중은 11.3%로 2.3%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퇴직연금 중도인출 인원은 5만명으로 1년 전보다 9.0% 감소했다. 인출 금액은 10.2% 감소한 1조7000억원이었다.

중도인출 인원·금액은 인출 요건이 엄격해짐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다.

사유별로 보면 주택구입 목적으로 인출한 인원이 2만3000명으로 46.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인원이 1년 전보다 22.0% 줄었는데 2019년 이후 첫 감소다.

주택 구입 목적의 인출 금액도 9698억원으로 23.4% 감소해 3년 만에 줄었다. 지난해 부동산 시

장 부진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 인출이 가장 많았다. 20대 이하의 주거 임차의 목적으로 인출한 인원이 49.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자는 694만8000명으로 1.6% 늘었다.

가입 대상 근로자 1228만1000명 중에서는 653만4000명이 가입해 가입률은 53.2%였다. 1년 전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 대상 사업장 159만5000곳 가운데 실제 가입한 사업장은 42만8000곳으로 도입률은 26.8%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이 10.5%, 300인 이상 사업장이 91.9%로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도입률이 높게 나타났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효성굿스프링스, 아태 지역 펌프업체 첫 ‘ISO 19443’ 인증

### 유럽 등 글로벌 원전 시장 요구하는 필수 인증...시장 선점 효과

효성의 펌프 전문 계열사인 효성굿스프링스(주)는 19일 아태지역 펌프 업체로는 최초로 국제 원자력 품질 경영 표준 인증인 ‘ISO 19443’을 한국품질재단(KFQ)으로부터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 19443’는 기존 국제표준에 비해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 정착 정도와 원전 기자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 위험성 등을 강화한 인증제도다.

효성굿스프링스는 ▲원자력 안전 문화 구축에 대한

리더십 ▲원자력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ITNS(Important to Nuclear Safety) 제품·부품 및 관련 업무 관리 체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인증은 효성굿스프링스가 ‘ISO 19443’ 인증 취득을 필수로 요구하는 글로벌 신규 원자력 발전 시장에서 우위적인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전 세계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기업 관계자 설명이다.

영국과 프랑스,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유럽과 중동 등 원전 운영사들은 원전 기자재 공급 시

‘ISO 19443’ 인증 취득을 요구하고 있다.

효성굿스프링스 김태형 대표이사는 “이번 ISO 19443 인증 획득으로 원자력용 펌프 제조 업체로서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 받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한 브랜드 파워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 공략에 더욱 적극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효성굿스프링스는 지난 2016년 국내 최초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부여하는 원자력 펌프 성능 검증기관 자격을 취득했고, 2017년 국내 최초로 원자력 1등급 펌프 제조업체 자격을 취득한 바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삼성 ‘청년SW아카데미’ 9기 수료식...5년간 5천명 취업

### 고용부와 선별·교육·취업 지원 협력 5831명 수료생 중 85% 취업 성공 기업들 ‘실전형 인재’ 채용 우대

삼성은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서울 캠퍼스에서 ‘SSAFY’ 9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2018년 12월 1기 교육을 시작한 SSAFY는 5년 만에 약 5000명의 수료생이 취업에 성공하며 개발자의 꿈을 이뤘다.

SSAFY는 삼성이 2018년 발표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 IT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고 청년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한 CSR 프로그램이다.

삼성은 고용노동부와 교육생 선별·교육 운영·취업 지원 등 전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SSAFY는 8기까지 수료생 5831명을 배출했고, 이 가운데 4946명이 취업해 약 85%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조기 취업에 성공한 9기 수료생까지 포함하면 취업자수는 5000명이 넘는다.

SSAFY 수료생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네이버, 쿠팡, 티맥스, 현대오트모터, KT DS, LG유플러스 등 IT·통신·유통 기업과 포티투마루, 뉴빌리



티 등 유망 스타트업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이들이 취업한 기업의 수는 1200여개에 달한다.

우수한 실력을 바탕으로 기업에 입사한 SSAFY 수료생들이 ‘실전형 인재’로 인정 받으면서, 150여개에 이르는 많은 기업들이 채용시 ▲서류심사 면제 ▲코딩 테스트 면제 ▲서류심사 가점 등 SSAFY 수료생에 대한 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68.55(+1.69)
↑ 코스닥	858.30(+7.34)
↑ 금리(국고채 3년)	3.296(+0.019)
↑ 환율(USD)	1307.80(+10.60)



##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80호점 선정식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사진 왼쪽)은 최근 광주시 남구 주월동 한빛지역아동센터에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80호점 선정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80호점으로 선정된 한빛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시설로, 현재 20여 명의 아동들이 방과후 학습지도와 미술 교육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

광주은행은 노후화된 한빛지역아동센터 반 지하 공간을 보수하고, 체형 공간 조성, 책상·의자·탁구대 설치, 학습용 제품 등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6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약을 통해 노후화된 광주·전남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시설을 개선하고, 대학생 고용 연계 등을 통한 취약계층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 돌봄 지도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올해 1억원을 들여 지역아동센터 13곳의 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했다.

또 고용 연계 등을 통해 취약계층 대학생 30여 명을 ‘희망이 꽃피는 봉사단’으로 선발해, 방과후 학습지도교사 역할을 맡기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은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꿈나무, 광주은행 장학회 등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사업을 더욱 체계화하고, 지역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과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4600여명의 지역 내 장학생들에게 총 39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경총-광주대 미래인재 양성 협약

광주경총(회장 양진석·취호원 회장)은 지난 18일 광주대 행정관 회의실에서 광주대학교와 지역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력 역외유출을 예방하고,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기업 발굴 ▲인경험 제공 ▲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을 계기로 광주대학교는 ▲실무형 지역인재 육성 ▲재용연계 인턴십과 현장실습 지원 ▲기업별 맞춤 교육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연구 및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광주경총은 회원사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무여건이 좋은 기업 발굴 ▲취업정보 제공 ▲취업지원 및 취업알선 ▲잡어기업 채용 및 교육 훈련 수요 파악 등을 중점 추진한다.

김동진 광주대 총장은 “우리 지역은 제조 기반 산업이어서 차년도는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미래 산업부분으로 확대하여 기업 실무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올해 광주시와 경총이 빛그린국가산단 배후단지 100만평 국가산단 추가 지정을 받았고, 미래형 자동차 소부장 특화 단지를 지정받아 광주·전남 자동차산업 특히 뿌리산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이라며 “산업이



지난 18일 ‘실무형 미래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양진석(오른쪽) 광주경총 회장(왼쪽) 김동진 광주대 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경총 제공>

확대되고 기업이 증가하면 일자리가 늘어 나게 될 것이다”면서, 기업에 맞는 인재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광주대와 경총 그리고 지역 유관기관의 다양한 협력으로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청년들도 일자리를 찾아 광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